

# 미생물 3번 살포로 끝... 자연농법이 뜬다

벼짚이나 퇴비도 사용 안해...자연상태 그대로 벼농사  
노동력·생산비 크게 줄여...고흥서 올 모내기 시연회

고흥과 보성에서 시작한 벼 자연재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벼 자연재배는 비료·농약·제초제·퇴비·벼짚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벼를 심은 뒤에는 우렁이와 유용 미생물을 투입해 병해충과 잡초를 관리하는 자연친화적인 농법이다. 한 마디로 벼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인간의 손길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다.

15일 고흥군은 “지난 11일 풍양면 장춘남씨 농가에서 자연재배 쌀 생산 실증시험 사업 모내기 연시회를 했고, 16일까지 해당 논에서 자연재배 모내기를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흥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이 농법은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육조건을 자연 상태로 유지해 농사짓는 형태다.

전남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친환경 농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연 상태 그대로 벼를 재배하는 방식이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점은 유기농법과 같지만 질소 과다를 막기 위해 벼짚이나 퇴비까지도 쓰지 않는 완전한 자연농사라는 점에서 성격이 크게 다르다. 단지 토양 양분 분해 촉진을 위해 미생물을 3회 벼 옆에 뿌려주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산된 쌀은 세포가 단단해 기존 쌀에 비해 부패가 잘 안 되고 밥맛도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벼를 제초작업이나 비료 살포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화학비료·농약을 살포하지 않아 농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기존 농법에 비해 환경파괴도 적어 새 농업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 10ha에서 35t을 시험생산해 유통업체와 계약 공급을 한 올해는 21 농가가 20ha에서 90t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생물 정기 살포와 후기 관리를 철저히 해 전체 면적에 올해 유기농산물 친환경 획득하고 소비자들로 부터도 최고의 유기농 쌀로 인정받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연재배는 일반 농법에 비해 수량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지난해 고흥군의 자연재배 결과 미질은 다른 농법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쌀 생산량은 10a(300평)당 ‘친농’의 경우 427kg, ‘히노히카리’는 338kg으로 20~30%가량 줄었다.

한편 보성군도 올해 3ha의 논에서 벼 자연재배를 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자연상태 그대로 농사를 짓는 자연농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13일 고흥의 한 농가에서 자연농법 모내기 행사가 열렸다. <고흥군 제공>

## 고흥 녹동농협 육묘장 영농철 농가 지원 값싸고 질 좋은 육묘 3만4400 상자 공급



고흥 녹동농협(조합장 양수원)이 자체 육묘장(사진)에서 생산한 우량 묘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녹동농협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지난해부터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녹동농협은 “일반 못자리에서 육묘를 생산하려면 30~40일이 소요되지만 육묘장에서는 10여 일 만에 숙성으로 육묘를 공급할 수 있어 육묘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들 눈에 직접 배달 공급하고 있어 바쁜 농가 일손을 덜어줄 뿐 아니라 적기에 우량묘를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농협 직원들은 정기 우량 육묘 공급을 위해 지난 4월 중순부터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육묘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모내

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문량도 폭주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재 66만1000㎡ 논지에 육묘2만 상자가 공급되었으며, 고흥만 농경지 32만지(47만6032㎡)에 육묘1만4400상자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2만6700 상자에서 올해는 3만4400 상자로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

이는 한 상자당 공급단가가 2700원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고 품질을 믿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수원 조합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육묘생산의 번거로움과 일손을 덜기 위해 육묘장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위해 고품질의 저가 육묘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 소설 '태백산맥' 감동을 한 눈에

별교 태백산맥 문학공원에 23m 기념 조형물 제작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기념하는 대형 기념 조형물(사진)이 보성군 별교읍의 태백산맥 문학공원에 세워졌다.

보성군은 지난 12일 별교읍사무소 옆 소공원에서 조정래 작가와 김원 건축가, 임권택 감독, 송영석 해남 출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산맥 문학공원 기념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기념조형물은 서울대 조소과 이용덕 교수가 독창적인 조각기법을 사용해 가로 23m, 높이 3m 크기로 제작했다. 소설을 탐고하며 고뇌하는 조정래 작가의 모습을 스테인리스 스틸 주조로 표현했으며,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해 소설 태백

산맥의 내용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조정래 작가는 “소설 '태백산맥'으로 고발을 당했을 때는 이런 조형물이 들어설 거라 상상도 못했다”며 “민주화가 되고 지자체가 발전하면서 문화비와 문학관, 문학공원을 만들어 준 고향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별교에는 지난 2008년 태백산맥문학관이 개관한 이래 태백산맥 문학의 거리가 조성되고 당시 숙박시설인 보성여관이 복원됐다. 소설에 등장하는 금융조합 건물도 보수를 완료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 구례군 상반기 자활사업워크숍...참여자 70명 이상

구례군은 지난 12~13일 1박 2일간 구례 한화 호텔&리조트에서 2014년 상반기 자활·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사업워크숍을 개최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워크숍은 자립을 위한 동기 부여와 스스로 일을 찾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구례군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워크숍을 개최해 안전교육은 물론 자활근로자의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활근로사업과 희망리본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희망기울통장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51명, 자활특례자 21명, 차상위계층 69명으로 총 1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인턴도우미형 13명 ▲사회서비스형 106명 ▲근로유지형 22명이다.

구례=이성구기자 lsg@kwangju.co.kr

## 곡성군 '민선 6기 군정 목표 구호' 아이디어 공모

곡성군이 민선 6기를 대표하는 '군정 목표 구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곡성을 바꿀 미래 비전이 담겨 있거나 곡성의 때묻지 않은 자연 등을 함축하고 있는 문구이면 된다.

오는 17일까지 개인 및 단체, 공무원,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곡성군청 홈페이지

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공모제안서 서식을 작성한 뒤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민선 1~5기에 사용했던 군정 구호와 유사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문의(061-360-8267).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사이트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www.yh-bus.com

## 여행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여행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